

선교동향과 한국선교의 회고, 그리고 선교의 방향성

앤드류 김 (Global South Mission Consultant)

선교 동향: 선교 중심축의 이동과 남반구 선교운동

2025 년 말을 기준으로 세계의 선교사 파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0 여만명의 선교사 가운데 미국이 13 만 5 천명으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인도가 6 만명, 브라질이 3 만 5 천명, 필리핀이 2 만 5 천명, 한국이 2 만 3 천명, 나이지리아가 1 만 7 천명을 파송하여 선교사 파송순으로 이들 국가들이 상위 국가군에 속한다. 여기서 인도는 대부분 자국내 타문화권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브라질도 절반 정도는 자국내 특히 아마존 지역쪽으로 파송한 경우라서 해외 파송, 장기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선교사 파송 2 위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선교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남반구 선교운동이 불길처럼 힘차게 일어나고 있다. 2040 년이 되면 선교사 파송순에서 브라질이 단연 선두에 설 것으로 예측되며 인도, 나이지리아, 가나, 필리핀, 중국, 멕시코 등이 세계 선교의 주류가 될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상위 10 위권에는 들겠지만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55 세 정도가 되고 젊은 세대가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선교 역량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42 년째 필드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남반구에 해당하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 등의 40 여 개국에서 선교 컨설턴트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의 단체와 교단, 국가 그리고 대륙에서 선교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며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 초기 선교 동원부터 교육 및 훈련, 필드 개발 및 배치, 멤버 케어, 선교전략, 위기관리, 리더십 개발, 선교 출구 전략을 위한 마스터 플랜까지 다양한 영역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닌 각각의 선교단체들과 국가와 대륙의 체형에 맞는 선교 전략을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컨설팅하는 사역인데 이는 '선교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전제와 '선교를 통해 남반구 교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교회의 온전성을 회복하도록' 섬기는 일이다.

한국 선교의 회고와 반성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함께 한국선교는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고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거뒀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중국교회 성장을 견인하는 현지인 리더들의 대부분이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접했고 양육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이 일한 모든 대륙과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선교가 이뤄낸 긍정적 자산들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위한 내실있는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필드로 나왔고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시스템이나 여력을 갖지 못해 아쉬운 면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서구 모델을 비판적 상황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답습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선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적용의 부재라는 면에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기보다 비전략적 선교로 귀결되었다.

선교사로 필드에 나가는 것을 헌신으로 생각하다 보니, 정작 필드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언제 이양을 하고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필드를 떠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Next Steps 를 생각하지 못했고, 은퇴를 맞이 하는 시기에 한국이나 필드에서 재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교의 입구 전략, 사역 전략, 출구 전략 등 '선교의 마스터 플랜'이 없이 열정과 헌신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지인들이 자립 자치 자전 자신확화를 하도록 격려하지 못하고 도리어 의존적 사고를 갖도록 한 측면도 있다.

선교사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보내기 보다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내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게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은 고급 선교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동화되지 못하고 선교를 계승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회당 건축에 대한 지나친 열심은 결국 건물은 갖되 주님의 제자들은 양육하지 못했다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그외에도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받아 사역을 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선교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했고, '선교적 투자 개념보다는 선교 재정을 소비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선교가 왜곡된 측면도 있다.

한국 선교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생각한다

<선교 플랫폼 구축> 이제는 선교적 환경의 변화로, 한 사람의 필드 사역자가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는 것 보다, 선교 플랫폼들을 구축하여 더 많은 선교적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사역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역 장르들을 창출해 가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한 사람의 위대한 선교사 보다 모든 이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모두의 선교'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라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직업창출형 선교> 성경책만 들고 필드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선교사들이 직업을 갖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지에서 직업을 창출해 내고, 파송/협력 교회에만 재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믿음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 우아해 보일 수 있지만 선교의 절대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가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역이므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육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회의 선교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후원을 받을 경우, 다른 사역자들, 혹은 선교사 후보생들의 기회를 제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선교사들이 평생을 한국 교회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선교 재정의 효과적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일을 위해서는 사업가, 농업 전문가, 음악인 등 다양한 전문 직업을 가진 이들과 함께 동역을 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개발 그리고 선교와의 통섭>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녹색성장/녹색개발과 선교와의 통섭을 준비하는 것은 미래 선교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녹색성장/개발은 선교사역을 NGO 및 국제개발 기관 등과 통섭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으로, 선교사들이 녹색성장/개발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역을 통해 그 지역에서 신뢰를 구축하며, 복음 중심의 지속적 영향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선교적 디아스포라> 수십년을 선교지에서 일하고 은퇴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갖기 쉽다면 선교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교사명을 주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하셨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다.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선교적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며 새로운 선교적 기회들을 만들어 내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담대하고 지혜롭게 선교하라>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눅 16:1-9) 는 솔직히 듣기에 불편하다. 그러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 (mamōnas tēs adikias)은 도둑질한 돈이나 범죄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한 구조와 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재물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자리가 곧 끝난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했고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과 기회를 평가한 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직하지 않은 일을 실행했다. 이 불편한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동기, 올바른 신학, 바른 믿음은 충분히 있지만 시대를 읽고 해석하는 통찰,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에서는 세상보다 뒤쳐져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전적 비유이다. '세상의 자녀조차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준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하고 선교 재정을 담대하게 일으키고 투자하여 선한 결실을 창출하는 지혜를 요구하신 것이다.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선교사 개인의 훌륭한 연주도 중요하지만,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싸인을 놓치지 않도록 늘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집중하여 연주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선교는 협업이기 때문에 모든 연주자들이 함께 화음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고, 이것은 구성원들의 사심이 없어야 가능하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교회에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 우리 교회의 뜻이 이뤄지는 선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선교를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라고 하는 거대한 Kingdom Perspective 를 체득화하고 내면화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과 사역 현장에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응해 가는 선교적 크리스찬들을 기다린다.